

#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완료, 101억 삭감

### 도의회 교육위, 정규직 인건비 55억·교육장 해외연수 8000만원 등 17건 지적... 추경예산안 원안 처리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에 걸쳐 전라북도교육청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완료했다.

2018년 세출예산안은 당초 교육감이 제출한 3조 3,157억에서 101억 3,000만원을 감액한 3조 3,056억으로 수정 의결하였고,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했다.

교육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지난 24일 도교육청 본청을 시작으로 27일 도교육청 본청 2차, 28일 14개 지역교육청, 29일 12개 직속기관 순으로 진행되었고, 29일 오후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심의 의결했다.

2018년 본예산 중 주요 감액 사항으로는 매년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는 인건비의 추계 정확성 확보 차원에서 정규직 인건비 55억을 삭감하고 수요조사 및 사전계획이 부실한 토론학습실 구축 10억, 교육장 해외연수 비용 8,000만원, 행사성 경비 과다 편성으로 도교육청 본청 사업별 운영용품비 8,200만원 등 총 17건, 101억 3,500여만원을 삭감했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18년도 예산안은 4일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한 번 더 거쳐 12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진성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기업부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 “나는 왜 정치를 시작하는가”

### 박원순 특강... 2일 오후3시 건설회관

사단법인 사람과미래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초청해 오는 12월 2일(토), 오후3시, 전북건설회관 두나미스홀 6층에서 특강을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날 박 시장은 “나는 왜 정치를 시작하는가”라는 주제로 강의에 나서며 참석자들과 비합리적인 정치의 효율적 방향에 대한 생각을 공유할 예정이다.

(사)사람과미래는 세상을 바꾸는 정책 연구소와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 아카데미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 장학수, '한국 의정대상' 광역의회 부문 '대상' 수상

전라북도의회 장학수 의원(국민의당, 정읍1)이 활발한 입법활동과 공약실천 등 우수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여의도 정책연구원(행정자치부 등록 266호)'이 주최하고 (사)한국기업평가원이 평가하는 '2017년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에서 광역의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수상식은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장학수 의원

올해 의정대상 광역의회부문은 전국적으로 대상 10명, 최우수상 25명이 선정됐다.

장 의원은 “의원으로서 당연하게 해야 할 역할을 했을 뿐인데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더 열심히 노력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유권자들로부터 잘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미련을 주고 떠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진성 기자

## “내년 지방선거 경선 불복자 5년 자격 박탈” 정호윤 “양궁장 활용방안 찾아야”

### 與 정발위, 6차 혁신안 발표... 청년 정치참여 확대 등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치발전위원회(정발위)는 지난 30일 내년 지방선거부터 경선 불복 경력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지방선거기획단에 권고했다.

여선용 정발위 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6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은 ▲경선 불복 및 탈당 제재 강화 ▲원내정당 기능 강화 ▲청년 정치참여 확대 등이 골자다.

여 위원은 “당헌 제94조에 의해 모든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출마자가 그 결과를 불복할 경우 이후 5년간 후보자 자격이 박탈된다. 이에 더해 경선시 감산 20%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선거일 전 150일 기준으로 직전 선거에서 탈당하고 복당해 공천 신청시 경선에서 20% 감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규정은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도록 지방선거기획단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을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선출하고 중앙당 조직

인 정책위원회를 원내기구로 조정하도록 결정했다”며 “정책위를 예비 내각(새도 캐비닛) 형태로 전환해 18부처별 대응체제를 갖춰 당의 목소리가 체계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청년 정치참여 확대 방안으로 당직 구성에 있어 청년 할당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며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비율도 10%에서 15%로 상향한다”고 전했다.

여 의원은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 기초 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청년후보자 1인을 기본으로 공천하도록 결정했다”며 “이 규정은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기획단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 위원은 “청소년 예비 당원제를 도입하고 운영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한 당헌 당규 개정은 물론이고 정당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과제로 당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 여결특위, 위센터·양궁장 점검 허남주 “위센터 인력확충 필요” 최명철 “위센터 적극 홍보 필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영일·순창)는 30일 전주교육지원청 덕진위(Wee)센터(진북초교내)와 전라북도 양궁장(임실 오수)을 찾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와 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한 위(Wee)센터는 학교부적응 학생 해소와 학업중단 방지를 위해 단위 학교에서 선도·치유가 어려운 위기학생들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으로 ‘진단·상담·치유’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다.

최영일 위원장은 “학생들의 정신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위센터의 역할이 강조된다”며 “상담에서 끝내지 말고 다양한 연계프로그램을 발굴해 학생들의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허남주(자유한국당, 비례) 의원은 “도내 16개 위센터에 상근 인력은 84명으로 1개

센터 당 3~8명이 근무하는데 전주처럼 관리학생이 많은 지역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의문 된다”며 “필요인력 업무 분석과 향후 인력 확충 및 업무 조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명철(전주4) 의원은 “위(Wee)센터의 중요성과 역할 확대를 실제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은 위센터에 대해 생소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위센터의 역할 및 운영 프로그램 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결위원들은 이어 임실군 오수면에 건립 중인 양궁장을 방문, 양궁장 건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계획과 운영 방안 등에 대해 관계자와 의견을 나눴다.

정호윤(전주1) 의원은 “전국 체전을 잘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전 이후 양궁장 시설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며 “양궁장 운영 등 관리 방안과 전지훈련 유치 등 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확인한 현장의 목소리를 오는 4일부터 시작되는 2018년도 예산안 및 정리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자연과 사람이 아름답게 공존하는

# 세계 최고의 자연생태도시, 고창군

고창군관광사슴습지